

<국가승인통계>**2025년 식품 수입 87만건, 366억달러
전년 대비 각각 3.3%, 2.4% 증가**

- 식약처, 지난해 수입식품 현황 분석한 「202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발간
- SNS 인기 식품, 제로 칼로리 열풍 관련 제품 수입 증가
- 총 수입량은 감소...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량은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5개 국가에서 87만 4천여 건, 1,933만 톤, 366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3.3% 증가, 중량은 0.3% 감소, 금액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등 분류(이하 '품목군')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24) 85만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 ('25) 87만건(3.3% ↑), 1,933(0.3% ↓)만 톤, 366억 달러(2.4% ↑)

< 2025년 수입식품 통계의 주요 특징 >

- ① **[국가별]** 수입 국가는 총 165개국이며, 수입량 상위 3개국은 미국(밀, 옥수수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로 전체 수입량의 55.2%(1,067만 9천 톤) 차지. 태국이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4위 차지
- ② **[품목군별]** 농·임산물(44.8%, 866만 8천 톤), 가공식품(35.0%, 676만 4천 톤), 축산물(9.8%, 188만 6천 톤), 수산물(4.9%, 95만 3천 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8%, 54만 1천 톤), 식품첨가물(2.6%, 49만 7천 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3천 톤) 순
- ③ **[부적합]** 전체 수입량의 0.03%(약 6천 톤), 건수기준 국가별로 중국·베트남·태국 순, 품목별로 과자, 폴리프로필렌(기구 또는 용기·포장), 과채가공품 순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개별기준·규격 위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등

① 국가별 수입식품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식품 등을 수입한 국가는 총 165개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55.2%(1,067만 9천 톤)를 차지했다. 미국은 수입량이 '24년 대비 4.9%(380만톤 → 398만 6천톤) 증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361만 5천 톤→ 379만 9천 톤, 5.1%↑)과 호주(278만 톤 → 289만 4천톤, 4.1%↑)도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밀, 옥수수, 대두 중 밀, 대두는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옥수수의 수입 증가량은 53.3%(48만 톤 → 73만 6천톤) 크게 증가했다.

* [밀] 133만 4천 톤 → 129만 7천톤(2.8%↓), [대두] 63만 톤 → 58만 3천 톤(7.6%↓)

참고로 전체 옥수수 수입량이 감소(225만 8천톤 → 198만 8천톤)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브라질에서의 수입량이 각각 2.9%(77만 2천 톤 → 74만 9천 톤), 31.3%(18만 1천 톤 → 12만 4천 톤)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미국산 옥수수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김치(33만 7천 톤)와 정제소금(23만 2천 톤)이, 호주에서는 밀(134만 톤)과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4만 2천 톤)가 주로 수입되었다.

* 원당, 주정원료, 식용유지원료 등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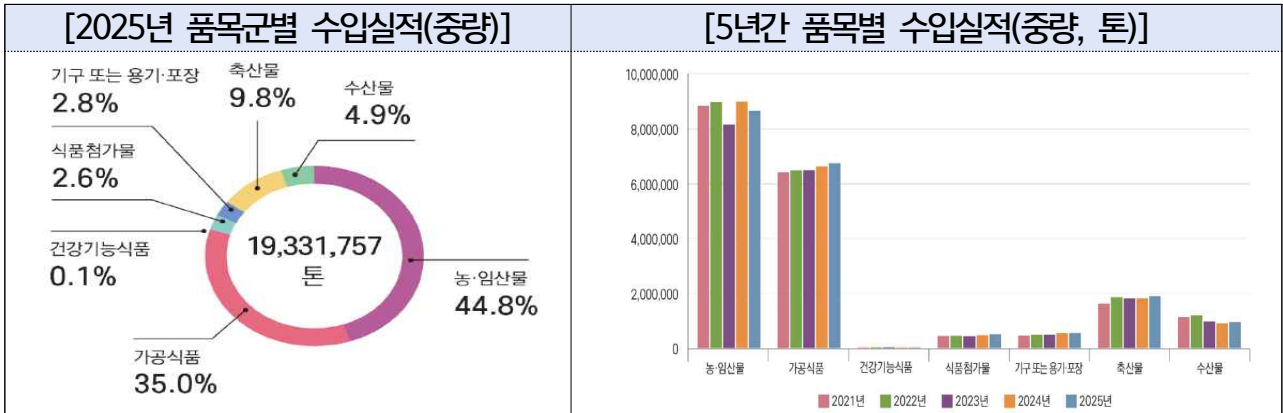
태국은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브라질을 제치고 수입량 상위 4위를 차지(89만 7천 톤 → 106만 2천 톤)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입품목 현황>

(중량: 톤)

순위	국가	주요 품목
1	미국	밀(129만 7천 톤), 옥수수(73만 6천 톤)
2	중국	김치(33만 7천 톤), 정제소금(23만 2천 톤)
3	호주	밀(134만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4만 2천 톤)
4	태국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55만 3천 톤), 설탕(9만 7천 톤)
5	브라질	대두(42만 5천 톤), 닭고기(17만 6천 톤)
6	베트남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16만톤), 바나나(8만 1천 톤),
7	우크라이나	옥수수(74만 9천 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3천 톤)
8	러시아	옥수수(27만 7천 톤), 냉동명태(11만 6천 톤)
9	캐나다	밀(23만 9천톤),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만 7천 톤)
10	말레이시아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25만 8천톤), 가공유지(1만 3천 톤)

② 2025년 수입식품 품목군별로 살펴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상위품목] '25년 한해 총 2,483개 품목이 수입됐다. 이 중 상위 5개 품목은 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냉동 돼지고기 (냉동, 卍無)로 이들 수입량이 전체의 45.0%(약 870만 톤)를 차지하고, 주로 원료성 식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농·임·축·수산물] 수입식품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입량은 1,151만 톤으로 '24년 대비 1.7%(약 20만 톤↓) 감소*했다.

* [농·임산물] 900만 4천 톤 → 866만 8천 톤(3.7%↓), [축산물] 180만 5천 톤 → 188만 6천 톤(4.5%↑), [수산물] 90만 1천 톤 → 95만 3천 톤(5.7%↑)

지난해에는 주요 수입 품목인 농·임산물 수입량이 '24년 대비 3.7% 감소(33만 6천 톤↓)하여 전체 식품 수입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중량 상위 품목인 밀(3.3%↑)은 수입이 늘었으나 옥수수(12.0%↓)와 대두(9.1%↓) 수입은 모두 감소하였다.

농·임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 밀 : ('23) 242만 3천 톤 → ('24) 279만 3천 톤(15.3%↑) → ('25) 288만 4천 톤(3.3%↑)
- ☞ 옥수수 : ('23) 201만 3천 톤 → ('24) 225만 8천 톤(12.2%↑) → ('25) 198만 8천 톤(12.0%↓)
- ☞ 대두: ('23) 125만 1천 톤 → ('24) 119만 4천 톤(4.5%↓) → ('25) 108만 5천 톤(9.1%↓)

한편 신선 농산물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26만 톤 가량 수입되었다. 특히 배추, 무, 양파 등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선 농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 배추 : ('23) 164톤 → ('24) 4,168톤(2,441.4%↑) → ('25) 2만 1천 톤(395.6%↑)
- ☞ 무 : ('23) 605톤 → ('24) 1,671톤(176.1%↑) → ('25) 7,835톤(368.8%↑)
- ☞ 양파 : ('23) 12만 4천 톤 → ('24) 8만 4천 톤(32.5%↓) → ('25) 14만 1천톤(67.7%)↑

축산물은 '25년에 '24년 대비 건수(121,099건 → 124,056건, 2.4%↑), 중량(1,805톤 → 1,886톤, 4.5%↑), 금액(88억 달러 → 95억 달러, 7.3%↑)이 모두 증가하였다. 지난 3년 연속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닭고기 수입량이 16.7%(19만 2천 톤 → 22만 4천 톤) 증가했다.

닭고기 수입량은 '24년 대비 미국 184.0%(2천 톤 → 6천 톤), 태국 54.2%(2만 2천 톤 → 3만 4천 톤)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은 9.1%(16만 1천 톤 → 17만 6천 톤) 상승에 그쳤다.

소고기의 경우, 호주(24만 톤 → 25만 8천 톤, 7.4%↑)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미국(23만 2천 2백 톤 → 23만 2천 8백 톤)은 0.2% 증가에 그쳤고 뉴질랜드 수입(1만 9천 톤 → 2만 1천 톤, 6.6%↑)은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미국(21만 톤 → 20만 톤, 3.8%↓)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은 27.3%(9만 7천 톤 → 12만 3천 톤), 캐나다는 10.7%(7만 6천 톤 → 8만 4천 톤) 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9.5% 감소(2만 3천 톤 → 1만 9천 톤) 하였다.

축산물(부산물 포함)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돼지고기	: ('23) 54만 6천 톤 → ('24) 60만 6천 톤(10.8%↑) → ('25) 60만 2천 톤(0.6%↓)
☞ 소고기	: ('23) 52만 6천 톤 → ('24) 51만 3천 톤(2.5%↓) → ('25) 52만 9천 톤(3.1%↑)
☞ 닭고기	: ('23) 23만 9천 톤 → ('24) 19만 2천 톤(19.7%↓) → ('25) 22만 4천 톤(16.7%↑)

최근 여름철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고기의 경우 '24년 대비 수입량이 26.3% 증가(8천 톤 → 1만 1천 톤) 하였으며, '25년에는 전량 호주산 염소고기가 수입되었다. 또한 베이커리 수요 증가와 원유 가격 등의 영향으로 치즈(12만 6천 톤 → 14만 8천 톤, 17.6%↑)와 버터(2만 톤 → 2만 8천 톤, 40.9%↑)도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수산물도 '25년에 '24년 대비 건수(84,364건 → 87,818건, 4.1%↑), 중량(901톤 → 953톤, 5.7%↑), 금액(41억 달러 → 45억 달러, 10.2%↑)이 모두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수입 1위 품목인 냉동명태(13만 9천 톤 → 11만 9천 톤)의 수입량은 14.6% 감소, 2위 품목인 냉동고등어(4만 1천 톤 → 5만 톤)의 수입량은 22.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량이 각각 0.4%(25만 1천 톤 → 25만 톤), 3.9%(22만 2천 톤 → 21만 4천 톤) 감소하였으나, 페루는 102.0%

(2만 4천 톤 → 4만 9천 톤), **에콰도르는 259.8%**(4,563톤 → 1만 6,418톤) 증가하였다. 이는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수입 증가** 등으로 에콰도르산 오징어(96톤 → 1만 5,937 톤, 16,501.5%↑)와 페루산 오징어(2만 2천 톤 → 4만 7천 톤, 109.7%↑)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주요 수입품목 수입량

- ☞ 냉동명태 : ('23) 14만 톤 → ('24) 13만 9천 톤(0.7%↓) → ('25) 11만 9천 톤(14.6%↓)
- ☞ 냉동고등어 : ('23) 4만 8천 톤 → ('24) 4만 1천 톤(14.6%↓) → ('25) 5만 톤(22.0%↑)

③ [가공식품·첨가물]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676만 톤(전체 수입량의 35.0%)으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25년도에는 **두바이 쏘독 쿠키**(두쏘쿠키), **말차 디저트** 등 SNS 유행 식품의 영향으로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마시멜로우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카다이프는 주로 튀르키예에서 건면으로 수입되며 '24년 대비 수입량이 340.5% 급증(79톤 → 347톤) 하였다. 피스타치오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나 볶은 피스타치오 등 가공식품*으로 25.9% 증가하였고, 마시멜로우**도 수입량이 48.2% 증가했다. MATCHA(말차향, 마차향) 식품첨가물(900kg → 3,510kg, 290%↑)도 동반 증가했다.

* 영문명 'PISTACHIO' 포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4) 324톤 → ('25) 407톤, 25.9%↑

** 영문명 'MARSHMALLOW' 포함 캔디류 ('24) 1,864톤 → ('25) 2,762톤, 48.2%↑

아울러 **'제로 칼로리 열풍'**으로 대체 감미료가 주목받은 가운데 식품첨가물인 **에리스리톨**(1만 톤 → 1만 1천 톤, 6.1%↑), **자일리톨**(3천 톤 → 4천 톤, 43.7%↑)과 당류가공품인 **알룰로스(ALLULOSE) 제품**(6천 톤 → 8천 톤, 31.2%↑)도 수입이 늘었다.

④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23년 이후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이며 '25년에는 1.2% 감소한 2만 3천 톤이 수입*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21) 2만 3천 톤 → ('22) 2만 7천 톤 → ('23) 2만 4천 톤(11.5%↓) → ('24) 2만 3천 톤(2.8%↓) → ('25) 2만 3천 톤(1.2%↓)

** 전자상거래물품 건강식품 수입동향(e-나라지표, 건)

: ('21) 1,538만 → ('22) 1,530만 → ('23) 1,578만 → ('24) 1,589만 → ('25) 1,634만

건강기능식품은 **복합영양소 제품**(7,799톤 → 7,289톤, 6.5%↓),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2,589톤 → 2,252톤, 13.0%↓), **EPA 및 DHA 함유 유지**(1,844톤 → 2,437톤, 32.1%↑),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로 수입되었다.

③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부적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73개국의 274개 품목, 1,420건(0.16%), 5,880톤(0.0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일본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들 5개 국가의 부적합은 869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1.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과자, 폴리프로필렌(기구 또는 용기·포장), 과·채가공품, 빵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 기준·규격 위반(440건, 31.0%)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83건, 19.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54건, 17.9%) ▲미생물 기준 위반(203건, 14.3%) ▲이물 위반(63건, 4.4%) 등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94건 → 254건, 13.6%↓)은 감소한 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50건 → 283건, 13.2%↑)이 증가했다.

* '24년도 부적합 현황(총 부적합 1,454건) : ▲개별 기준·규격 위반(456건, 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94건, 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250건, 17.2%) ▲미생물 기준 위반(182건, 12.5%) ▲중금속 기준 위반(61건, 4.2%) 등

<주요 부적합 품목·국가·사유 현황>

구분 순위	품목 계	건수 1,420	국가 계	건수 1,420	부적합 사유 계	건수 1,420
1	과자	90	중국	552	개별 기준규격 위반	440
2	폴리프로필렌	88	베트남	136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283
3	과·채가공품	78	인도	6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254
4	빵류	55	태국	63	미생물기준 위반	203
5	기타 수산물가공품	47	일본	55	이물	63
6	기타(269품목)	1,062	기타(68개국)	551	기타(10항목)	177

올해 발간한 「2026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통계정보→온라인 조회통계→검사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 대해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통관단계 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중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도 구매·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통계 발표 및 분석으로 정책의 수립, 학계 등 연구 활동, 산업 발전 및 소비자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기여함은 물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수입식품 등 현황(통계자료)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 식품 등: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 단위 수 반올림으로 인하여, 표의 총계와 개별수치의 합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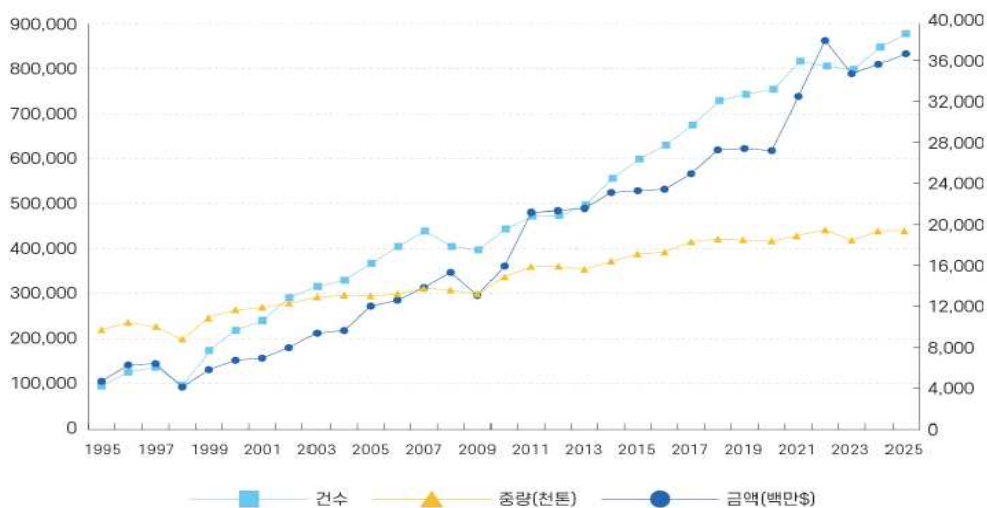
※ 자료출처 : 2026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1. 연도별 수입현황

연도	수입건수	증가율(%) ¹⁾	중량(톤)	증가율(%) ¹⁾	금액(천달러)	증가율(%) ¹⁾
2021년	814,618	▲8.5	18,936,539	▲ 3.3	32,577,910	▲19.5
2022년	802,200	▽1.5	19,476,547	▲ 2.9	38,110,296	▲17.0
2023년	792,374	▽1.2	18,382,546	▽ 5.6	34,825,722	▽ 8.6
2024년	846,594	▲ 6.8	19,380,930	▲ 5.4	35,761,939	▲ 2.7
2025년	874,928	▲ 3.3	19,331,757	▽ 0.3	36,621,474	▲ 2.4

1) 전년 대비 증감률(*2020년 수입현황 750,993건, 18,332,908톤, 27,262,396천달러)

연도별 수입신고현황('95~'25)



2. 품목군별 수입현황

품목군		수입신고		
		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합계		874,928	19,331,757	36,621,474
식품 등 소계		663,054 (75.8%)	16,493,369 (85.3%)	22,659,837 (61.9%)
	농·임산물	83,323 (9.5%)	8,668,205 (44.8%)	6,518,579 (17.8%)
	가공식품	346,226 (39.6%)	6,764,274 (35.0%)	10,954,953 (29.9%)
	건강기능 식품	13,361 (1.5%)	22,970 (0.1%)	1,020,077 (2.8%)
	식품첨가물	42,320 (4.8%)	497,274 (2.6%)	1,329,380 (3.6%)
	기구 또는 용기·포장	177,824 (20.3%)	540,644 (2.8%)	2,836,848 (7.7%)
축산물		124,056 (14.2%)	1,885,715 (9.8%)	9,478,403 (25.9%)
수산물		87,818 (10.0%)	952,673 (4.9%)	4,483,234 (12.2%)

○ 농·임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년		중량	금액	'24년		중량	금액
전 체		8,668,205	6,518,579	전 체		9,004,183	6,559,684
소 계		7,315,601	3,942,923	소 계		7,735,163	4,138,975
1	밀(씨앗)	2,883,774	762,342	1	밀(씨앗)	2,792,683	809,260
2	옥수수(씨앗)	1,988,169	528,816	2	옥수수(씨앗)	2,258,253	615,227
3	대두(씨앗,건조)	1,085,080	592,388	3	대두(씨앗,건조)	1,194,224	735,494
4	바나나(열매,신선)	349,604	306,235	4	바나나(열매,신선)	412,749	368,255
5	현미(씨앗)	209,032	162,622	5	현미(씨앗)	331,215	294,413
6	고추(열매,냉동)	186,600	109,691	6	고추(열매,냉동)	190,915	120,717
7	커피원두(씨앗,건조)	176,175	1,285,600	7	커피원두(씨앗,건조)	174,100	848,476
8	보리(씨앗)	173,130	82,738	8	보리(씨앗)	166,511	92,701
9	양파(신선)	140,666	35,145	9	당근(뿌리,신선)	118,377	48,881
10	쌀(씨앗)	123,371	77,346	10	오렌지(열매,신선)	96,136	205,551

○ 축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년		중량	금액	'24년		중량	금액
전 체		1,885,715	9,478,403	전 체		1,804,568	8,836,771
소 계		1,399,259	7,122,615	소 계		1,334,040	6,651,677
1	돼지고기(냉동,뼈無)	360,503	1,489,501	1	돼지고기(냉동,뼈無)	367,148	1,527,844
2	소고기(냉동,뼈無)	240,509	1,668,585	2	소고기(냉동,뼈無)	223,938	1,483,666
3	닭고기	200,828	451,888	3	닭고기	170,207	344,832
4	치즈	148,673	778,838	4	자연치즈	126,376	614,660
5	소고기(냉동,뼈有)	128,561	1,063,834	5	소고기(냉동,뼈有)	122,038	993,728
6	소고기(냉장,뼈無)	88,647	1,185,110	6	소고기(냉장,뼈無)	89,876	1,195,255
7	돼지고기(부산물)	79,609	94,535	7	돼지고기(부산물)	85,883	113,380
8	혼합분유	51,954	170,442	8	혼합분유	51,791	162,321
9	우유	50,776	40,144	9	우유	48,459	36,795
10	돼지고기(냉동,뼈有)	49,199	179,738	10	돼지고기(냉동,뼈有)	48,324	179,196

○ 수산물

(단위: 톤, 천달러)

'25년		중량	금액	'24년		중량	금액
전 체		952,673	4,483,234	전 체		901,137	4,069,693
소 계		369,937	993,786	소 계		378,187	924,605
1	명태(냉동)	118,861	129,028	1	명태(냉동)	139,247	136,783
2	고등어(냉동)	49,942	152,713	2	고등어(냉동)	40,928	99,258
3	오징어(냉동)	32,933	119,859	3	오징어(냉동)	39,873	139,602
4	주꾸미(냉동)	28,031	178,119	4	주꾸미(냉동)	28,530	177,134
5	오징어(냉동,동체)	26,535	89,693	5	아귀(냉동)	27,155	56,683
6	아귀(냉동)	25,520	54,812	6	낙지(냉동)	24,062	156,999
7	낙지(냉동)	24,908	159,963	7	오징어(냉동,동체)	21,341	55,654
8	오징어(냉동,지느러미)	23,234	71,538	8	오징어(냉동,지느러미)	21,215	43,163
9	바지락(활)	20,793	27,066	9	바지락(활)	18,605	25,414
10	정어리(냉동)	19,180	10,995	10	각시가자미(냉동)	17,231	33,915

○ 가공식품

(단위: 톤, 천달러)

'25년		중량	금액	'24년		중량	금액
전 체		6,647,061	10,713,797	전 체		6,647,061	10,713,797
소 계		4,471,509	3,672,159	소 계		4,405,857	3,793,243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식품원료	2,383,699	1,812,895	1	정제,가공을거쳐야 하는식품원료	2,344,509	1,742,588
2	김치	337,271	185,975	2	과·채가공품	342,560	732,123
3	과·채가공품	314,779	649,109	3	김치	311,620	176,990
4	천일염	287,145	21,051	4	천일염	286,660	20,726
5	맥주	240,442	197,753	5	정제소금	224,237	17,299
6	정제소금	232,434	15,739	6	맥주	218,336	183,997
7	절임식품	198,894	171,984	7	절임식품	205,692	306,726
8	서류가공품	177,212	296,258	8	서류가공품	167,624	288,312
9	곡류가공품	157,098	183,398	9	곡류가공품	162,101	178,965
10	전분	142,535	137,997	10	전분	142,518	145,517

○ 품목별 세부 수입현황(중량기준, 상위20개)

순번	품목명	수입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전 체	874,928	19,331,757	36,621,474
	소 계	174,902	12,186,036(63.0%)	11,789,881
1	밀(씨앗)	715	2,883,774(14.9%)	762,342
2	정제,가공을거쳐야하는식품원료	1,837	2,383,699(12.3%)	1,812,895
3	옥수수(씨앗)	654	1,988,169(10.3%)	528,816
4	대두(씨앗,건조)	949	1,085,080(5.6%)	592,388
5	돼지고기(냉동,뼈無)	17,083	360,503(1.9%)	1,489,501
6	바나나(열매,신선)	4,739	349,604(1.8%)	306,235
7	김치	31,253	337,271(1.7%)	185,975
8	과채가공품	20,401	314,779(1.6%)	649,109
9	천일염	284	287,145(1.5%)	21,051
10	소고기(냉동,뼈無)	15,724	240,509(1.2%)	1,668,585
11	맥주	4,166	240,442(1.2%)	197,753
12	정제소금	246	232,434(1.2%)	15,739
13	현미(씨앗)	49	209,032(1.1%)	162,622
14	닭고기(냉동)	8,656	200,828(1.0%)	451,888
15	절임식품	12,784	198,894(1.0%)	171,984
16	고추(열매,냉동)	2,240	186,600(1.0%)	109,691
17	서류가공품	6,394	177,212(0.9%)	296,258
18	커피원두(씨앗,건조)	5,541	176,175(0.9%)	1,285,600
19	보리(씨앗)	691	173,130(0.9%)	82,738
20	폴리프로필렌	40,496	160,756(0.8%)	998,711

3. 국가별 수입현황(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건수	순위	국가	중량(톤)	순위	국가	금액(천달러)
전체(165개국)		874,928	전체(165개국)		19,331,757	전체(165개국)		36,621,474
소계(20개국)		779,516 (89.1%)	소계(20개국)		17,698,389 (91.6%)	소계(20개국)		31,528,003 (86.1%)
1	중국	312,432 (35.7%)	1	미국	3,986,393 (20.6%)	1	미국	6,994,731 (19.1%)
2	미국	84,490 (9.7%)	2	중국	3,798,808 (19.7%)	2	중국	6,645,030 (18.1%)
3	일본	51,672 (5.9%)	3	호주	2,894,271 (15.0%)	3	호주	3,301,548 (9.0%)
4	베트남	41,895 (4.8%)	4	태국	1,061,864 (5.5%)	4	베트남	1,964,508 (5.4%)
5	프랑스	40,132 (4.6%)	5	브라질	944,199 (4.9%)	5	브라질	1,252,159 (3.4%)
6	이탈리아	36,697 (4.2%)	6	베트남	807,536 (4.2%)	6	태국	1,165,202 (3.2%)
7	태국	35,953 (4.1%)	7	우크라이나	757,624 (3.9%)	7	러시아	1,000,475 (2.7%)
8	호주	34,845 (4.0%)	8	러시아	560,341 (2.9%)	8	스페인	965,346 (2.6%)
9	스페인	19,646 (2.2%)	9	캐나다	557,298 (2.9%)	9	캐나다	924,984 (2.5%)
10	노르웨이	17,473 (2.0%)	10	말레이시아	353,214 (1.8%)	10	뉴질랜드	858,345 (2.3%)
11	독일	15,348 (1.8%)	11	필리핀	330,629 (1.7%)	11	이탈리아	858,039 (2.3%)
12	캐나다	12,523 (1.4%)	12	스페인	263,498 (1.4%)	12	독일	760,927 (2.1%)
13	브라질	11,698 (1.3%)	13	일본	220,954 (1.1%)	13	프랑스	741,925 (2.0%)
14	영국	11,119 (1.3%)	14	네덜란드	181,129 (0.9%)	14	일본	738,227 (2.0%)
15	칠레	10,154 (1.2%)	15	인도네시아	178,342 (0.9%)	15	칠레	648,602 (1.8%)
16	러시아	9,936 (1.1%)	16	뉴질랜드	175,633 (0.9%)	16	노르웨이	625,092 (1.7%)
17	인도네시아	8,935 (1.0%)	17	독일	169,334 (0.9%)	17	말레이시아	620,203 (1.7%)
18	뉴질랜드	8,526 (1.0%)	18	인도	157,650 (0.8%)	18	네덜란드	567,622 (1.5%)
19	인도	8,235 (0.9%)	19	이탈리아	153,299 (0.8%)	19	페루	465,555 (1.3%)
20	말레이시아	7,807 (0.9%)	20	칠레	146,372 (0.8%)	20	인도네시아	429,486 (1.2%)

4.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 부적합 현황

연도	건수	비율(%)*	중량(톤)	비율(%)*	금액(천달러)	비율(%)*
2021년	1,414	0.17	48,319	0.26	28,378	0.09
2022년	1,426	0.18	46,400	0.24	39,458	0.10
2023년	1,366	0.17	7,002	0.04	17,191	0.05
2024년	1,454	0.17	7,352	0.04	19,908	0.06
2025년	1,420	0.16	5,880	0.03	18,093	0.05

* 전체 수입대비 비율

○ 국가별 주요 부적합사유 현황(상위 5개국)

국가	순위	부적합사유	건수	국가	순위	부적합사유	건수
모든 국가	총 계		1,420	3. 태국	총 계		63
	소 계		1,243		소 계		62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440		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32
	2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283		2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7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254		3	미생물기준 위반	7
	4	미생물기준 위반	203		4	개별 기준규격 위반	4
	5	이물	63	5	허용외 식품원료(첨가물)	2	
1. 중국	총 계		552	4. 인도	총 계		63
	소 계		524		소 계		60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260		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25
	2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97		2	개별 기준규격 위반	16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95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1
	4	미생물기준 위반	48		4	이물	5
	5	중금속기준 위반	24	5	중금속기준 위반	3	
2. 베트남	총 계		136	5. 일본	총 계		55
	소 계		117		소 계		54
	1	미생물기준 위반	35		1	개별 기준규격 위반	38
	2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33		2	미생물기준 위반	7
	3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21		3	중금속기준 위반	6
	4	개별 기준규격 위반	14		4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2
	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14	5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1	